

한화솔라윈, 홍기준 사장 겸임

한화그룹 태양광 사업 계열사인 한화솔라윈은 6월28일 이사회를 열어 홍기준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을 최고경영자(CEO)로 선임했다.

한화그룹은 2010년 8월 솔라윈파워홀딩스의 지분 49.9%를 인수해 잉곳부터 모듈에 이르는 태양광 생산설비를 확보했고 사명을 한화솔라윈으로 변경했다.

한화솔라윈은 400MW의 잉곳과 웨이퍼를 각각 생산하고 있고, 500MW와 900MW의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능력을 2011년 말까지 각각 1.3GW, 1.5GW로 확대할 예정이다.

또 중국 난통(Nantong)경제기술개발지구에 2GW의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1/06/28>